

■ 공원 탐방

② 사직공원

사직공원 내 넓은 운동장이 있다. 90년대 전투경찰의 훈련장으로 사용됐지만, 요즘은 찾는 이가 거의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지난 1973년 건립된 사직공원 팔각정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도심 내 녹지 한 가운데 솟은 이 곳에서는 비록 고층 아파트나 나무로 인해 일부 전망이 가리지만, 여전히 광주천과 무등산, 광주를 감싸고 있는 녹지 등 곳곳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팔각정을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상징조형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으며, 4층 정상의 전망대에는 쓰레기가 넘치고 오가는 사람이 적어 밤이면 10·20대들의 술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시제안

광주에는 상상외로 다수의 역사문화자원과 공원이 도심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광주시 공식통계에 따르면 먼저 역사문화자원은 국보 제103호인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보물 제109호 광주서오층석탑 등 보물, 사적 등 128개의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으며, 그 외에도 기념물이나 문화재자료 등 시 지정 문화재, 광주시 장덕동 527번지 가옥 등 10개의 등록문화재가 있다. 공원도 부지기수다. 101곳의 근린공원, 356곳 어린이공원 등 모두 457개의 공원이 있어 광주시민들은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맑은 공기과 안락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사문화자원과 공원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모두 시와 자치구 등 행정기관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며, 적은 인력으로는 상시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과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관리 자체를 그러한 자원이나 공원 등이 위치한 지역의 반사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

공원·역사문화자원

주민자치위서 관리하자

민들에 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사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주 특정시기에 실태 파악 및 청소, 그 외 관리 등을 맡고, 매년 도시공원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 등이 이를 평가해 활동이 우수한 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광주서오층석탑

그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등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동네의 발전까지 도모해 낼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야말로 이들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낼 수 있다. 이들 자원의 보존 책임을 행정기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주라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그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의 조나카이(町内會),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상시적인 주민 미팅 등에서는 이러한 지역 내 자원이나 환경의 보존·활용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과거 반사회 등의 확대 재구성 또는 현재 각 동마다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역적인 현실에 기반한 대책을 부과하며, 이러한 책임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에 따라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할 시점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심속 녹색 허파...시민 품으로 되돌려야



이끼로 가득한 돌담과 산책길.

이곳에서 작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43)씨는 "산책로나 가로등이 정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밤이면 쓸쓸스럽다"며 "녹지 이곳저곳에 맥주 캔이나 비닐봉투가 나뒹굴고 있으며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사직공원에는 기존에 전투경찰 훈련장으로 쓰였던 운동장이나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생활체육광장, 물 없는 분수대 등, 다시 말해 소중하지만 그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 상당하다.

쓰레기 나뒹굴고 생활체육광장 한적

우선 이 운동장은 1971년 사직동물원이 들어설 당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1990년대 시위가 거의 매일 계속됐을 때 전투경찰들의 고함소리로 떠들썩했던 곳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이곳을 찾았을 때는 창을 배우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가 목청을 가다듬고 있을 정도로 적막하게 됐다.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보존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이 운동장과 체육광장으로 들어서는 폭 1.5m 정도 되는 길 옆 담에는 이끼가 두텁게 깔려 있었다. 이 길을 통해 공원을 거닐면 곧 테니스장과 각종 운동기구가 있는 생활체육광장으로 들어설 수 있다. 저녁 때면 인근 사직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고시생 등이 간혹 이곳을 찾아 운동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지만, 시설 곳곳이 풀로 우거진 것을 보면 찾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심을 마치고 산책을 즐기던 정기수(35)씨는 "모기 등으로 괴롭히는 하지만 너무도 멋진 공간들이 알려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도시 속에서 담에 이끼를 어떻게 볼 것이며, 숲 속에 이러한 운동장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너무도 멋진 공간들 잠초속 방치

광주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인 '양파정'도 돌보는 이 없이 잠초 속에 서 있다. 공원 입구 방림파출소 옆 가파른 돌 계단을 올라가면 경찰 총흔담 앞에 다 쓰러져가는 정자가 있는데, 이것은 일제시대 광주 유명한 갑부 정낙교가 자신의 호를 따 1914년 짓고 그 뒤 한 차례 중건해 광주시에 기증한 것이다. 양파정 밑에는 광주 천 주변 홍수를 막기 위해 지은 '석서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양파정 지붕 밑에는 유명인사들의 시나 시조가 붙어 있으며, 그 뒤로 경찰총흔담이 자리하고 있다. 사직공원을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선 통과 차량을 막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원에 차량의 매연과 경적소리가 어울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걸으며, 녹색의 나무와 거기서 나오는 맑은 공기를 음미하는 공간으로 거듭 나도록 함과 동시에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특화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사직공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끼려는 도시민들의 인식전환 및 행동도 필수조건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gricultural machinery. Text: '농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Includes images of various tractors and equipmen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una Sanghyeon (062) 363-4800.

Advertisement for a camera. Text: '참서 진품을 저렴하게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최서를 보는 순간 강한 氣를 느낄 수 있습니다!!' Includes an image of a camera and a man's face.